

# 생닭, 치킨값이 기가막혀

### 닭고기 소비자가 1kg 5356원...평년보다 9% 하락

### 프렌차이즈 치킨 1마리 최고 19000원...10년새 45% ↑

### 양계협 "치킨 분사만 이익...값 내려 소비자 외면 막아야"

생닭은 2000원 치킨은 2만원. 닭고기의 소비자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닭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치킨의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보여 소비자와 양계농가 울상을 짓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닭고기의 소비자가격은 17일 기준 1kg에 평균 5356원으로 전주 5141원보다 215원 올랐다. 하지만 사육 전 5404원 보다 하락했다. 이는 평년 기준 가격인 5906원에 비해 9.3% 떨어진 수치다.

육계용 닭고기도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중 산지가격은 1kg당 1431원으로 평년 1883원보다 24% 하락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반면, 주요 외식품목인 '치킨'의 가격은 프랜차이즈업체를 기준으로 적게는 1만5000원부터 1만9000원이 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BBQ는 올봄부터 메뉴 '베리링' 치킨을 1만9900원에 팔고 있다. 올초 내놓은 '치즐링'과 '허니칼릭스' 가격은 각각 1만9000원과 1만8900원이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8월부터 레드스틱, 레드콤보, 허니콤보 가격을 1000원 인상해 1만8000원에 팔고 있다. BHC의 '순살 뿌링클'은 1만9000원, 네네치킨의 순살 스노빙치킨은 1만9000원이다. 여기에 최근 소스 등을 포함하면 2만원이 훌쩍 넘

는 가격의 신제품도 출시됐다. 2005년 이후 10년동안 국내 치킨 값이 45%정도 오른 것으로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훨씬 높았다.

닭고기의 가격 하락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A) 발생과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닭고기 유입, 전복이나 장어 같은 수산물 보양식의 인기에 원인을 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인한 도계 마릿수 증가와 계열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생계의 유통시세는 전망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까지 닭고기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닭고기값 반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와 닭고기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치킨외식산업 업체들의 높은 가격 책정이 소비자의 치킨에 대한 외면을 불러 닭고기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치킨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아무리 닭을 길러도 농가나 대리점에 돌아가는 혜택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만 이익을 본다"며 "소비자들이 비싼 치킨을 외면해 닭고기 산업이 공멸하기 전에 먼저 가격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킨외식산업업체들은 '치킨 가격상승으로 닭고기 소비가 줄고 있다는 생산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치킨프랜차이즈업체 한 관계자는 "치킨 가격은 단순히 육계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건비나 임대료, 부재료 등 여러 분야에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며 "또 매일매일 시세를 따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단위로 산지 농가와 협의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계 가격 변동분으로 치킨 가격 책정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영업이익 지난해의 절반인데...

## 금호타이어 파업 장기화하나

### 노조, 집행부 선출 미루고 파업 총력

금호타이어의 상반기 경영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는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까지 연기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8일 금호타이어 상반기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시장환경의 악화와 경영의 심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나 감소했다. '인당 평균 인건비(총인건비/총인원)'의 경우 경쟁사 대비 약 8.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2008년에는 경쟁사보다 '인당 평균 인건비'가 무려 65%가 높았으며 워크아웃 졸업 직전인 2014년에도 경쟁사 대비 96% 수준으로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약 6380만원으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며, 생산직 신입사원의 초임 역시 4400여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파업 이틀째인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에서 임시 대외대화를 열고, 다음달 초로 예정된 집행부 선출 일정을 1주일 연기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일시금 지급 등 기존 입

장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루 8시간씩 전면 파업 방식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대외대회에서 사측을 압박할 또 다른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은 이날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 기존 '즉시 도입'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피크제 추후 논의, 일시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가 여전하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파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부 선출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유지'를 보장하고 임금인상에도 기존안에서 대폭 상향된 안을 제시했다"며 "노측에서도 회사측 제시안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코스닥, 600선으로 '털썩'

1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중국 환율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 700선을 내주며 전날보다 22.21p(3.08%) 내린 699.80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6.50 (-12.26)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1)
- ▼ 코스닥 699.80 (-22.21)
- ▲ 환율 (USD) 1185.00원 (+1.90)



효성 관계자가 지난 17일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한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을 전달했다. <효성 제공>

## 효성, 취약계층 여성 취업 돕는다

### 자립 지원 7000만원 전달

효성은 18일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한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2013년부터 3년째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탈북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이 체계적 직업훈련을 받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

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훈련과정은 급식조리전문가, 아이돌보미 교육이다. 올해는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해 급식조리사 자격증, 방과후 학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총 200시간의 교육과정 수료 후 전달 직업상담사의 일대일 취업지원을 받게 되며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80명이 교육을 받았고 67명이 취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보온·방수 'UP' 겨울 재킷 출시

### 트렉스타 '드라이 다운'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대표이사 권동철)는 '나노 필 파워 코팅'으로 방수 처리해 내구성과 보온성을 강화한 겨울용 재킷 '드라이 다운'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드라이 다운' 상품은 '베르디 2' '아크로' '카리아3' 등 세 가지 종류로, 모두 오리털을 충전재로 사용한 덕다운 재킷이다. 오리털에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나노 필 파워 코팅'을 입혀 방수력을 높인만큼 눈이나 비, 땀에 오리털이 젖거나 눌리지 않아 내구성이 좋다. 나노 코팅으로 보온성도 한층 강화됐다. 방수 처리로 인한 무게 증가가 거의 없어 가볍게 착용 가능하다. 또 재킷 속에서 발생하는 체온을 방출하지 않고 모아, 보온성을 높이는 'SHELL HEAT' 기술이 적용돼 한겨울에도 따



뜻하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장시간 습기에 노출되더라도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돼 각종 세균 및 곰팡이 서식을 방지한다.

트렉스타는 신제품 '드라이 다운' 출시를 기념해 31일까지 드라이다운 제품 구매 시 50%를 즉시 할인해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교장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문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앙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